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 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 유 선
(상명대학교)

I. 머리말

외국어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 배양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단순한 언어 구사 차원이 아니라 해당언어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중국어교육은 문화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실행은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는 시급히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통한 중국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현재 한국의 중국어교육 상황에 근접하면서도 적용 범위가 넓은 중국어교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는 본 연구를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中國語 I』과 『中國語 II』 총 10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 둔다.¹⁾

1) 본고에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10종을 각각 로마자로 표기해서 분석하기로 하였다.

II. 중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교재의 중요성

언어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기호가 아니라, 각기 다른 인간 집단이 오랜 역사를 통해 그 언어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이 유기적으로 체계화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형성된 언어가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언어에는 말과 글이라는 표면적 기호와 함께 그 심층에는 해당언어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언어를 포함하고, 언어는 다시 문화 속의 또 다른 특수한 문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²⁾ 즉, 우리가 언어로 상대방과 교류한다는 것은 언어와는 별개의 규칙을 가지고 인간교섭의 영역과도 연관된 사회문화적 교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호로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문화와 언어는 서로 뒤엉켜 있으면서도 질서정연한 체계들로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 교육 역시 그 언어의 모체인 외국 문화를 교육하는 일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문화지역의 구성원들의 습관·생활양식·가치관·세계관 등은 본질적으로 그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표기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6종 10권
I	송창기·송진영, 『中國語 I』(민중서림, 2001.11 교육부 검정)
II	한무희·윤영근, 『中國語 II』(부민출판사, 2002.7 교육부 검정)
III	임승규·정의원, 『中國語 I』(시사에듀케이션, 2001.7 교육부 검정)
IV	임승규·정의원, 『中國語 II』(시사중국어사, 2002.7 교육부 검정)
V	박덕준·정동수 등, 『中國語 I』(정진출판사, 2001.7 교육부 검정)
VI	박덕준·정동수 등, 『中國語 II』(정진출판사, 2002.12 교육부 검정)
VII	강식진·안기섭 등, 『中國語 I』(진명출판사, 2001.7 교육부 검정)
VIII	강식진·안기섭 등, 『中國語 II』(진명출판사, 2002.7 교육부 검정)
IX	이재돈·모혜연 등, 『中國語 I』(정진출판사, 2001.7 교육부 검정)
X	이재돈·모혜연 등, 『中國語 II』(정진출판사, 2002.12 교육부 검정)

2) 程棠, 「關於“結構-功能-文化上結合”的教學原則的思考」, 『世界漢語教學』第4期, 1996. 79-88쪽.

있는 능력이란 바로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방법과 함께 해당 외국어가 지닌 사회문화적인 특징 역시 올바르게 조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가 모국어에서 외국어로 언어를 전환할 경우, 해당언어의 문화적 맥락과 언어를 분리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바로 언어학습에 있어서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에 숙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은 교실에서 실생활을 직접 흉내 내어 봄으로써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능력과 함께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외국어를 숙달시킴과 더불어 외국의 사회문화적 유형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 외국어 교수법에서는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에 있다고 볼 때,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지식 뿐 아니라 사회문화에 대한 지식까지의 습득을 포함하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Rivers는 “언어 교육에서 문화에 대한 소개가 수반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들이 배우는 언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는 해당언어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하여 경멸과 적개심을 갖게 한다.”³⁾라고 하여 문화교육이 결여된 외국어교육은 잘못된 언어관을 갖게 하는 동시에 그 나라 문화에 대한 경멸과 적개심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Seely는 이러한 문화교육의 목적을 일곱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한 행동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언어에 대한 감각이나 기능을 익힐 수 있게 한다. 둘째, 언어와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한 문화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형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넷째, 그 문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들과 문장들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함축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섯째, 한 사회를 일반화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3) Rivers W. M,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315

위함이다. 여섯째, 다른 문화를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설립하게 한다. 이는 단순하고 지엽적인 문화교육을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문화교육을 가능하게 한다.4)

이러한 외국어 교육 방법으로 H. Besse는 외국어 교육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문화에 대한 접근법을 모두 다음의 네 가지 경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문화를 가르치지 않고 언어만을 가르치는 방식, 둘째, 언어를 가르치지 않고 문화만을 가르치는 방식, 셋째,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방식, 넷째,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상관관계가 증시되는 문화상호적 의사소통개념과 학습자의 문화이해 과정으로서의 異化와 同化의 상호작용을 근본원칙으로 하는 문화상호적 접근법이다.5)

그중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법은 외국어교육과 상관관계를 증시하면서 이루어지는 문화상호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Hans-Jürgen Krumm 역시 문화상호적 교수법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문화비교의 출발점은 양 문화의 등가가치성이다. 이러한 등가가치성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결속과 연결을 가져다준다. 즉 상대방의 상이성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규범을 객관적으로 문제시해 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 間文化的 外國어교육의 학습목표에 속한다.6)

Hans-Jürgen Krumm의 주장은 바로 외국어를 교육하는데 있어 문화교육을 병행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상호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어 교육의 교수법은 중국어교육에도 유용하게 적용되는 교육법이다.

필자는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중국어교육에 있어 이러한 교수법의 출발점을 중국어교재에서 찾고자 한다. 대부분의 중국어학습자가 일반적으로 가장

4) H. Ned Sleyee,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Foreign Language Educator*, National Company Skokie, 1976. pp.170-178

5) 강성영, 『우리나라 프랑스 언어, 문화교육에 있어서 문화 상호적 접근법 적용 실태』, 『불어불문학연구』41집, 2000. 재인용

6) 권오현, 『간문화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외국어교육』, 『독어교육』14집, 1996. 재인용

먼저 중국어를 학습하게 되는 방법은 교재를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중국어 학습과 동시에 중국문화를 익히게 되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과 구성이 학습자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중국어교육자는 문화교육과 언어교육을 연계하여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현행 중국어교재에 수록된 중국문화의 집필 내용과 구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구체적인 방안도출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교수방법과 교재개발에 대해 모든 중국어교육자와 학습자가 공감하지만 어떠한 교재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지 못 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문화교육 관점에서 중국어교재 유형을 고찰해 보면 현재의 문화교육 상황을 알 수 있다. 중국어교재를 이 같은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종류1: 문화요소가 들어 있는 일상 회화나 강독·작문을 교육하기 위한 중국어교재를 통한 교육

종류2: 중국문학·중국사상·중국철학·중국역사·중국지리·중국정치·중국사회·중국경제 등과 같은 전문적인 문화교재를 통한 교육

종류1은 언어기능의 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학습자가 학습대상 언어로 사고와 표현 및 의사소통의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류2는 체계적으로 중국문화를 소개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화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학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사고방식·심미경향·민족심리·풍습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⁷⁾

그런데 위의 두 종류의 교재를 분석해 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종류1은 이제 막 한어병음을 배우는 기초수준에서 고급수준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넓은 범위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내용과 범위도 역시 단순정보에서 고급정보까지 다양하다. 반면, 종류2는 중급 이상의 독해능력을 지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류1보다는 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문화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중국어교재를 문화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문

7) 李曉琪 主編, 『對外漢語文化教學研究』, 商務印書館, 2006. 346쪽

제점을 찾아낸 뒤, 이를 보완할 현실 교육에 적합한 문화교육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기존 교재의 문화내용은 단순히 문화내용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습자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문화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학습자의 문화능력, 문화 접촉을 통해 얻어지는 외국어 교육의 잠재적 효과, 중국전체의 문화지도는 물론 각 지역의 문화지도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화교육의 효과를 얻지 못 하고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재가 중국어 수업의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문화내용을 제시하는 중국어 교재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학습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문화를 접하게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를 활용하게 하여 학습자의 중국어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귀결된다.

III.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의 문제점

중국어교재에서 문화교육은 크게 직접적인 형태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직접적인 형태는 교재 전체가 중국문화를 다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본문의 읽기 자료가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인 경우, 또는 본문에 나온 문화항목에 대해 중국어나 한국어로 해설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간접적인 형태는 교재에 나오는 어휘나 대화 내용, 본문 속에 간접적으로 문화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많은 경우, 가치관이나 세계관, 사고방식 등과 같은 문화의 심층적인 부분은 특히 교수자가 직접 지적해 주기 전에는 모국어 화자나 학습자 모두 인식하기 어렵다.⁸⁾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中國語 I』, 『中國語 II』 총 10권은 위에서 언급한 문화교육의 직접적인 형태와 간접적인 형태 모두 해당되며 이에 관한 연구는 여러 편의 학위논문과

8) 연동숙, 『중국어교재와 문화교육』, 『中國研究』제 25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0

소논문으로 발표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내용 중 중국어 학습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어로 집필된 별도의 문화부문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과서 I : 쉽터 11회⁹⁾

- ① 문화소개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총 14단원 중 4, 5, 6 과를 제외한 11개 단원에서 문화소개를 하고 있다. 구성 역시 일률적이 못하게 단원의 마지막이나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 편집의 편의에 따라 배치했다는 인상을 준다.
- ② 각 과의 내용이 연관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못 하다.
- ③ 각 과의 심도가 고르지 못하다.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적인 내용이 다소 소홀히 다루졌고,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지 않는 문화정보가 대부분이다.

교과서 II : 중국이야기 12회¹⁰⁾

- ① 각 제목 역시 중국어 교과서답게 중국어를 노출한 단어를 넣어 문화교육과 언어교육의 이중효과를 가져왔다.
- ② 각 단원의 마지막에 문화 주제별로 일정한 분량으로 중국문화를 소개하여 각 단원의 학습과정에 일관성을 부여했다.
- ③ 내용구성에 있어 현재 학습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제공하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체계적이지 못 하다.

-
- 9) 1과 중국민족은 하나일까? (42쪽) 2과 중국의 언어 (50쪽) 3과 중국의 인구는 정말 얼마나 될까? (63쪽) 7과 중국인의 시조 황제(黃帝) (109쪽) 8과 전통적인 중국을 보고 싶으면 베이징으로 가세요 (123쪽) 9과 폐킹 오페라 (139쪽) 10과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 상하이 (153쪽) 11과 진시황과 병마용 (168쪽) 12과 영화 『패왕별희』(176쪽) 13과 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쭈저우와 항저우 (187쪽) 14과 근세 중국의 치욕과 영화의 증인 홍콩 (199쪽)
 - 10) 1과 북경(北京) (22쪽) 2과 북경대학(北京大學) (36쪽) 3과 판다(大熊貓) (50쪽) 4과 자우쯔(餃子) (66쪽) 5과 고궁(故宮) (80쪽) 6과 중국의 자전거 (94쪽) 7과 중국 최대의 왕바(網吧) ‘페이위(飛宇)’ (112쪽) 8과 2008년 북경 올림픽 마스코트 푸와(福娃) (126쪽) 9과 한류(韓流) 열풍 (140쪽) 10과 백두산(白頭山) (156 쪽) 11과 화목란(花木蘭) (170쪽) 12과 춘절(春節) (184쪽)

교과서Ⅲ: 재미있는 중국 이야기 18회¹¹⁾

- ① 문답형식을 사용하여 중국문화정보를 소개하고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점은 참신하긴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집단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② ‘신나는 인터넷 여행’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학습자들에게 중국문화에 대해 심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과서Ⅳ: 가보고 싶은 중국 15회¹²⁾

- ① 전체적으로 하나의 콘셉트를 잡아 중급중국어 학습자에게 중국문화를 소개하여 초보적이긴 하지만 체계적인 중국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도시 선정에 있어 체계이지 못하고 산만한 점이 아쉽다.
- ② 풍부한 이미지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에게 용이하게 중국문화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용의 심도가 약한 점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11) 1과 중국에는 자장면이 없다는데요? (28쪽) 2과 봄철의 황사(黃砂)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34쪽) 3과 중국의 국가와 국가는 어떤 것인가요? (40쪽) 4과 중국의 결혼 풍습은 어떤가요? (52쪽) 5과 중국 영화에 나오는 소림사는 정말로 있는지요? (58쪽) 6과 중국의 인구가 세계 1위라면서요? (64쪽) 7과 만리장성의 길이는 정말로 만 리 인가요? (76쪽) 8과 중국 고등학교의 생활은 어떤가요? (82쪽) 9과 중국인들은 어떤 선물을 주고 받나요? (88쪽) 10과 영화 『패왕별희』에 나오는 경극이란 무엇입니까? (100쪽) 11과 중국 사람들은 차(茶)를 매우 좋아한다는데... (106쪽) 12과 중국의 전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112쪽) 13과 중국의 화폐는 어떤 모양인가요? (124쪽) 14과 중국은 자전거 천국이라던데 정말 인가요? (130쪽) 15과 중국인이 입는 옷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36쪽) 16과 대륙과 대만, 홍콩 영화는 서로 많이 다른가요? (148쪽) 17과 우리나라 TV광고에 나오는 자금성(紫禁城)은 어떤 곳인가요? (154쪽) 18과 중국의 진시황(秦始皇)은 어떤 인물인가요? (160쪽)
- 12) 1과 北京市(1)-중국의 수도 (16쪽) 2과 天津市(1)-중국의 수도 북경의 문호 (24쪽) 3과 天津市(2)-텐지의 명물 구부리왕만두(狗不理包子) (32쪽) 4과 內蒙古自治區-푸른초원 (46쪽) 5과 北京市(2)-북경 전통 가옥 쓰허웬(四合院) (54쪽) 6과 上海-중국 최고의 상업도시 (62쪽) 7과 南京-중국 역사의 중심지 (76쪽) 8과 蘇州-동양의 베니스 (84쪽) 9과 杭州-중국의 주요 관광 도시 (92쪽) 10과 洛陽-중국 7대 고도 중의 하나 (106쪽) 11과 桂林-중국 최고의 자연 경관 (114쪽) 12과 沈陽-청 태조 누얼하츠의 숨결이 있는 곳 (122쪽) 13과 拉薩(라싸) 西藏自治區-소수민족 쟁족(藏族)의 문화적 보고 (136쪽) 14과 西安-중화 민족의 요람 (144쪽) 15과 新疆維吾自治區-중국에서 가장 큰 자치구 (152쪽)

교과서 V: 중국문화산책 12회¹³⁾

- ① 다른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초급 학습자가 중국문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한 페이지에 걸쳐 각 과마다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구성하고 있다.
- ② 정보전달의 형식으로 문자텍스트만을 사용하고 있고 시각적 자료는 배제되어 있어 학습자의 흥미유발 효과는 거의 볼 수 없다.

교과서 VI: 중국문화 산책 6회¹⁴⁾

- ① 중국문화와 중국어를 관련시켜 집필하고자 하였으나 일관적이지 못 하고 체계적이지 못 하다.
- ② 중국문화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중국 실제 생활에 유용한 정보제공에 치중하였다.

교과서 VII: 중국 옛보기 12회¹⁵⁾

- ① 실생활 위주의 중국문화를 소개하고 각 단원 문화내용 마지막에 ‘인터넷사 이트 향해’라는 코너를 삽입하여 학습자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있다.
- ② 중국문화 정보 전달의 형식으로 문자텍스트와 함께 다양한 이미지 자료를

- 13) 1과 중국 개관 (16쪽) 2과 중국인의 인사법 (28쪽) 3과 중국인의 이름 소개법과 성씨(姓氏) (40쪽) 4과 중국인과 차(茶) (52쪽) 5과 학습도우미: 중국어로 숫자 읽기 (64쪽) 6과 학습도우미: 한어병음 퍼즐1 (76쪽) 7과 蜂蜜蜜 (90쪽) 8과 중국의 교통수단-기차 (104쪽) 9과 중국의 화폐 (118쪽) 10과 중국의 요리 (132쪽) 11과 명덕의 가족 (146쪽) 12과 학습도우미: 간체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60쪽) 13과 중국의 명승지 (174쪽) 14과 중국의 결혼 풍속 (188쪽) 15과 중국의 전통 명절 (204쪽)
- 14) 1과 학습도우미: 中國儿歌 (22쪽) 2과 동서남북 (38쪽) 3과 학습도우미: 龍的傳人 (54쪽) 4과 중국 시(詩) 감상 1(70쪽) 5과 2008년 올림픽 개최 도시 북경 (86쪽) 6과 중국의 철도 여행과 기차표 (102쪽) 7과 중국어에서의 외래어 표기 (118쪽) 8과 馬虎의 유래 (134쪽) 9과 중국의 교육 제도와 대학 입시 (150쪽) 10과 중국의 대학생 스케치 (166쪽) 11과 학습도우미: 중국의 시(詩) 감상 2 (182쪽) 12과 인터넷에서 중국어로 편지 보내기 (198쪽)
- 15) 1과 중국의 국토·인구·국기·국가 (20쪽) 2과 중국어란? (36쪽) 3과 중국의 명절과 기념일 (52쪽) 4과 숫자 이야기 (68쪽) 5과 중국의 민족 구성과 종교 (84쪽) 6과 중국의 화폐 (100쪽) 7과 북경의 교통수단 (114쪽) 8과 햄버거를 즐기는 중국인 (130쪽) 9과 경극 (146쪽) 10과 오해하기 쉬운 중국어 단어들 (160쪽) 11과 중국의 요리 (178쪽) 12과 중국어와 컴퓨터 (196쪽)

제공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교과서Ⅷ: 중국 엿보기 10회¹⁶⁾

- ① 대부분의 내용이 『중국어 I』과 연계되어 중급 중국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현 중국의 실질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어 『중국어 I』의 문화내용에서 한층 심화되었다.
- ② 다른 교과서에 비해 문화적 내용이 다채롭기는 하지만 각 과의 본문 및 관련 어휘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 아쉽다.

교과서Ⅸ: Chinese tips 12회¹⁷⁾

- ① 각 단원마다 한 방법의 현대 중국 문화 관련 이미지자료 한 장에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 ② 제목이 일괄적이지 못하고 이미지 자료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

교과서 X: Chinese tips 10회¹⁸⁾

- ① 『중국어 I』내용과 차별되게 각 단원마다 고대 중국 문화의 각 방면을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 ② 중국어 표기와 내용 구성이 일괄적이지 못 한 점이 두드러진다.

위의 10권의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언어교육의 테두리

-
- 16) 1과 중국의 학제 (22쪽) 2과 중국의 기차 (38쪽) 3과 중국인의 건강관리 (54쪽) 4과 주의할 중국인의 생활 문화 (72쪽) 5과 중국 속의 한국 문화 조류 (88쪽) 6과 중국의 5대 명산 (104쪽) 7과 세계무대에서의 중국 스포츠 (120쪽) 8과 신조류와 신조어 (152쪽) 9과 중국의 10대 명주 (152쪽) 10과 중국의 대기오염과 그 영향 (168쪽)
 - 17) 1과 중국~ 어때요? (25쪽) 2과 바둑은 어디에서...? (41쪽) 3과 중국의 가족 (57쪽) 4과 만리장성 (73쪽) 5과 중국요리 (89쪽) 6과 중국의 연회 (105쪽) 7과 중국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121쪽) 8과 중국의 차 (137쪽) 9과 중국의 추석 (152쪽) 10과 중국의 날씨 (169쪽) 11과 중국의 학생들은 지금... (185쪽) 12과 태극권 (201쪽)
 - 18) 1과 漢族의 유래 (11쪽) 2과 중국인의 호칭 (27쪽) 3과 중화의 유래 (43쪽) 4과 실크로드 (59쪽) 5과 중국의 방언 (75쪽) 6과 갑골문 (91쪽) 7과 황제의 아침 수라상 (107쪽) 8과 王府井 (123쪽) 9과 중국의 茶禮 (139쪽) 10과 황사 (155쪽)

안에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문화교육의 공통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 교과서는 각 단원의 본문과 문화내용 간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 현행 전체 10 종의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가운데 각 단원의 본문과 문화 코너의 내용이 서로 연관성 있게 구성된 교과서는 부민출판사의 『중국어Ⅱ』, 진명출판사(강식진 등외)의 중국어『Ⅰ』과 『중국어Ⅱ』, 진명출판사(이재돈 등외)의 『중국어Ⅰ』, 정진출판사의 『중국어Ⅰ』 다섯 종이다. 이는 겨우 50%를 차지하는 비율로 본문 내용의 연장 혹은 심화시키는 문화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각 교과서마다 갖는 고유한 특성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적 요소의 소개에 치중되어 있다. 교과서 내용과 구성이 일관된 교과서는 시사에듀케이션의 『중국어Ⅰ』, 시사중국어사의 『중국어Ⅱ』, 정진출판사의 『중국어Ⅰ』, 진명출판사(이재돈 등외)의 『중국어Ⅰ』과 『중국어Ⅱ』이다.

셋째, 주로 학습자에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의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10종에 수록된 문화지면은 대부분 문화정보 소개로 학습자가 문화습득을 위해 사고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 문화방면의 사고와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교과서는 시사에듀케이션의 『중국어Ⅰ』와 진명출판사(강식진 등외)의 『중국어Ⅰ』 두 종이다. 이 두 교과서는 각 단원마다 문화소개 후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여 학습자의 보충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넷째,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일으킬 장치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한 주제를 던지고 그에 대한 소개를 문자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이미지 자료나 부교재 사용이 전혀 유도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학습자가 중국어의 언어 지식 외에는 문화 관련 학습에는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IV. 문화교육에 효과적인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편찬을 위한 개선방안

위의 문화교육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화교육에 유용한 교과서 편찬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각 교과서마다 한 가지 주제나 콘셉트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문화내용을 구성한다. 교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중국문화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교재집필자는 적게는 10개 단원 많게는 20단원에 해당하는 분량에 어떠한 방향으로 중국문화를 교육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문화교육을 위한 교과서 집필은 같은 규모의 주제로 같은 깊이의 심도를 중복되지 않게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생활문화를 상위 콘셉트로 잡는 교과서라면, 음식문화, 대중문화, 경제현황, 풍속습관, 영화, 여행, 지역문화, 자연문화, 주거문화, 교육문제, 언어특성, 예술, 패션, 공연예술 등을 하위 주제로 삼아 구성한다.

둘째, 본문의 내용과 문화소개 코너의 내용을 가급적 일치시켜 문화와 중국어 단어를 연결시킨다. 본문에서는 그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화소재에 대한 중국어 표현과 단어로 구성하고, 문화소개 코너에 이에 관한 한국어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셋째, 본문에 나오는 문화적 설명이 가능한 낱말을 별도로 정리하여 학습자의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본문에 나오는 낱말을 정리하여 학습자의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어휘 가운데 본문이나 문화코너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는 다시 정리해서 그 문화적 배경을 설명한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연습문제 유형처럼 어휘나 문장의 반복 훈련 위주의 편성은 물론 학습자의 문화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수업 시간에 해결하도록 한다.

넷째, 시청각 교재 등과 같은 학습자의 흥미를 가져올 만한 부교재를 활용한다. 본문 내용과 관련된 그림이나 동영상을 삽입하여 보조 자료로 수업 시간에 활용한다. 학습자는 영상자료를 통해 문화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언어 학습에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연습문제에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토론이나 단체 활동에 대한 문항을 게재한다. 문화는 체험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이다. 때문에 문화를 활용하려면 학습자들이 직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학습자가 교재를 통해서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유도한다. 학습자에게 문화체험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강의실에서 발표와 토론을 하도록 한다. 현장에서 문화를 체험한 학습자가 실내학습과 야외문화체험으로 상호보완작용을 하여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현재 상용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10종인 송창기·송진영의 『中國語 I』(민중서림, 2001.11 교육부 검정), 한무희·윤영근의 『中國語 II』(부민출판사, 2002.7 교육부 검정), 임승규·정의원의 『中國語 I』(시사에듀케이션, 2001.7 교육부 검정)과 『中國語 II』(시사중국어사, 2002.7 교육부 검정), 박덕준·정동수 등의 『中國語 I』(정진출판사, 2001.7 교육부 검정)과 『中國語 II』(정진출판사, 2002.12 교육부 검정), 강식진·안기섭 등의 『中國語 I』(진명출판사, 2001.7 교육부 검정)과 『中國語 II』(진명출판사, 2002.7 교육부 검정), 이재돈·모해연 등의 『中國語 I』(정진출판사, 2001.7 교육부 검정)과 『中國語 II』(정진출판사, 2002.12 교육부 검정)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교재에 대한 문제점으로 모두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각 교과서는 각 단원의 본문과 문화내용 간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 둘째, 문화적 요소의 소개에 치중되어 있으며 각 교과서 마다 갖는 고유한 특성을 체계적으로 부각시키지 못 하고 있다. 셋째, 주로 학습자에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일으킬 장치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모두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각 교과서마다 한 가지 주제나 콘셉트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문화내용을 구성한다. 둘째, 교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한다. 본문의 내용과 문화소개 코너의 내용을 가급적 일치시켜 문화와 중국어 단어를 연결시킨다. 셋째, 본문에 나오는 문화적 설명이 가능한 낱말을 별도로 정리하여 학습자의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시청각 교재 등과 같은 학습자의 흥미를 가져올 만한 부교재를 활용한다. 다섯째, 연습문제에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토론이나 단체 활동에 대한 문항을 게재한다.

필자는 본 논문 이후에도 중국어교육자가 학습자에게 중국문화 관련 중국어교재와 현장에서의 문화교육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논의를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 참 고 문 헌

- 송창기, 송진영, 『중국어 I』, 민중서림, 2003.
한무희, 윤영근, 『중국어 II』, 부민출판사, 2002.
임승규, 정의원, 『중국어 I』, 시사에듀케이션, 2003.
임승규, 정의원, 『중국어 II』, 시사중국어사, 2003.
박덕준, 정동수, 최병진, 『중국어 I』, 정진출판사, 2002.
박덕준, 정동수, 최병진, 『중국어 II』, 정진출판사, 2002.
강식진, 안기섭, 유영기, 『중국어 I』, 진명출판사, 2002.
강식진, 안기섭, 유영기, 『중국어 II』, 진명출판사, 2002.
이재돈, 모혜연, 김춘희, 『중국어 I』, 진명출판사, 2003.
이재돈, 모혜연, 김춘희, 『중국어 II』, 진명출판사, 2003.
李曉琪 主編, 『對外漢語文化教學研究』, 商務印書館, 2006.
Rivers W. M,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H. Ned Sleeye,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Foreign Language Educator*, National Company Skokie, 1976.

程棠, 「關於“結構-功能-文化上結合”的教學原則的思考」, 『世界漢語教學』第 4 期, 1996.

강성영, 「우리나라 프랑스 언어, 문화교육에 있어서 문화 상호적 접근법 적용 실태」, 『불어불문학연구』41집, 2000.

권오현, 「간문화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외국어교육」, 『독어교육』14집, 1996.

연동숙, 「중국어교재와 문화교육」, 『中國研究』제25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0.

❖ ABSTRACT

Chinese education as the cultural education for the high school student

Jung Yousun

Although there are various kinds of teaching method for a foreign language class, we have mainly focused on grammar and translation. But recently culture-related education is beginning to make its appearanc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effective ways of cultural education in teaching and learning Chinese. For this study, some high school student who are studying Chinese were given question on the environment of Chinese class and the comprehension Chinese culture.

These ways of cultural education need to be accompanied by constant concerns and efforts from our government society, school and home, teachers and students.

In conclusion, I expect this study to be helpful to Chinese education so that we can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Key Words

문화교육,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 문화수업, 교재개발, 교과서
cultural education, Chinese Language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culture teaching, develop teaching materials, textbook

논문접수일: 2009. 11. 16.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